



People

산재진-및 산재문로짜카 전하주는 진함 삼의 이클다음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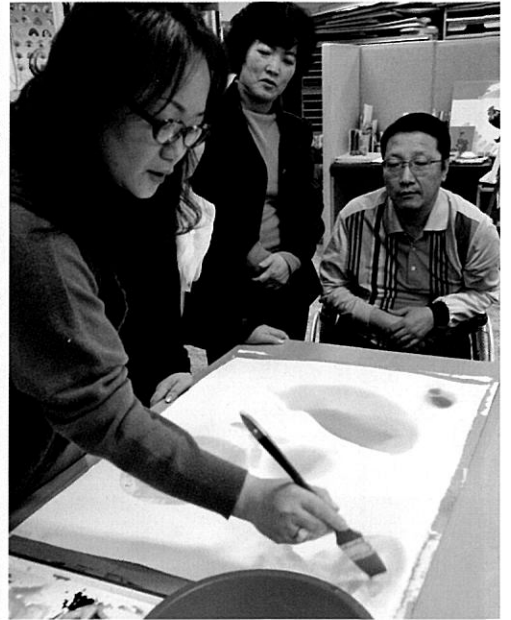
산재 극복의 명약은 바로 가족 사랑!

이만재 씨

원재 연습기 기자 skyway@safety.or.kr

굳은 손, 힘겨운 발걸음 등 이만재(51) 씨의 첫인상은 여느 장애인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또렷하면서도 당당함이 가득한 눈.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시선이었다. 혹시나 해서 그의 아내분께 전 직업을 물어 보니 대위로 예편을 한 후 20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다고 한다. 그는 군인이었다. 그제야 수궁이 갔다. 눈빛엔 장애라는 허울을 뚫고 애국심과 자긍심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산재로 인해 안타깝게 국방의 일선에서 벗어난 그를 만나봤다.

<* 이만재 씨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관계로 이번 호 인터뷰는 이만재 씨의 아내분과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아내분과의 대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애국심 가득한 연구원 시절

국방과학연구소.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곳. 무기 개발과 연구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라면 한 번쯤 일해보기를 꿈꾸는 연구소다. 그곳에서 1989년 7월 이만재 해군 대위를 불렀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국가의 부름에 따랐다. 늘 자랑스러워하던 군복을 벗고 하얀 가운을 입었다. 그렇게 연구원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큰 포부를 안고 시작한 새로운 직업은 그리 쉽지 않았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으면 야근을 기본으로 연이은 출장의 연속이었다. 기획, 검토, 시뮬레이션 실험 등 끝없는 과정 속에 연구실과 멀리 바닷가 실험장소만을 오가는 생활이 이어졌다. 다소 힘들었지만 우리나라 국방의 최첨단화를 이끄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견뎌냈다. 내 자신의 건강보다는 언제나 나라일이 우선인 그였다.

과중한 업무에 과로로 쓰러져

연구에 매진을 거듭하던 어느 날이었다.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식당에서 차레를 기다리던 중 갑작스런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도와주러 오는 동료들의 손길을 제지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다. 자신의 손으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개발해내겠다는 일념을 갖고 연구에 매진한 지 20년 되던 해였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는 각오로 재활치료에 임했지만 병색은 점점 짙어만 갔다. 2차 뇌출혈로 인해 편마비는 점점 심해졌고, 언어장애까지 왔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청춘과 평생을 다 바친 연구에 대한 열정을 접어야만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나눔 실천

이만재 씨는 직장에선 유머가 넘쳐 모든 직원들이 따르는 상사였고, 가정에선 당당하고 호탕한 아버지였다. 그런 그의 모습은 산재를 입고서도 변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재활치료는 물론 회화 등 특수재활치료에도 늘 앞장서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가 이처럼 장애에도 위축되지 않은 데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컸다. 그의 부인은 "남편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가족에게 역시 소홀함이 없는 가장이었다. 갑작스런 장애로 인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어떤 힘든 일도 가족과 함께라면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만재 씨와 그의 가족은 산재치료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산재를 입기 전부터 후원을 해오던 다양한 복지단체를 계속 후원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나눔을 실천해야 행복감이 커진다고 말하는 이만재 씨. 그의 가족 앞에 산재로 인한 장애는 넘지 못할 벽이 아닌 세상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길이었다. ☺